

# “신당, 호남서 새 모습 보여줘야”

손학규 대통령민주신당 대표는 9일 “낮은 자세로 반성하고 새롭게 변화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만 신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민심 행보에 나서고 있는 손 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 치평동 대통령민주신당 광주시당에서 광주·전남 지역 예비 총선출마자 5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신당이 호남에서 새로운 모습, 새로운 희망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미래를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인기로 밀려 미래 비전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여기서부터 신당의 사명을 제대로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광주·전남에서 단지 국회의원이 된다는 차원을 넘어 어떤 국회의원이 될까 하는 의지를 다지기 바란다”며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민은 신당뿐만 아니라 민주·평화·개혁세력에 또다시 따끔한 경고를 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총선의 경우 비교적 분위기가 좋은 광주·전남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총선 출마 희망자도 거의 없는 것이 참담한 현실”이라며 “(신당이) 낮은 자세로 반성하며 국민에게 나설 때 이번 총선에서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민주당과의 통합과 관련해서 “통합을 하더라도 과거 계파에 연연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민주신당 손학규 대표가 10일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전 출입기자들에게 장미꽃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 찾은 손학규 대표, 총선 출마자와 간담회

### “호남 제의 출마 희망자 없어 참담…반성해야”

한편, 손대표는 10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당을) 국민이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는 국민참여 정당으로 변화시키겠다”며 “총선 공천과정에서부터 모바일 투표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안정론과 경제론을 뛰어 넘어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며 국민참여 정당 구축, 새로운 진보 주체세력 형성, 총선 매니페스토 책자 발간 등 3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공천과 관련해서 “당 쇄신의 상징은 공천과정에서 나타날 것”이라며 “공천심사위 구성 및 운영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으로 쇄신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이며, 모두가 기록권을 버리고

성역없이 ‘공천특검’(박재승 공심위 원장) 앞에서 철저히 검증받겠다는 각오로 공천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신당 공심위, 12일 인선 마무리

## ‘공심위 진용·공천 기준 어떻게 되나’ 관심 집중

대통령민주신당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설 연휴 직후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고 총선 물갈이의 가능성이 될 ‘공천 기준’이 제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심위 진용과 공천 기준 마련은 손학규-박재승 체제의 첫 작품인데다 ‘공천 혁명’을 통한 대안 야당 건설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대통령민주신당에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신당은 이번 주 내에 공심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한다. 이르면

12일 공심위 구성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심위에 합류할 당내 인사와 외부 인사들의 구성과 공천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과 관련, 공심위에 참여할 원외 인사들의 인선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르면 11일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원내 인사들의 경우, 민주당과의 통합 문제가 아직 판가를 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내 논의를 거쳐 오는 12일이나 13일께 인선이 마무리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한 시민심사위원회(10명)는 10일

까지 접수된 서류 가운데 5배수 가량 추려낸 뒤, 면접을 거쳐 다음 주 내에 선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 쇄신과 공천 혁명의 가능성이 될 공천 기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신당에는 구체적인 공천 기준이 없는 상태다.

창당의 와중에서 당헌·당규에 ‘공직 후보 추천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다 때문이다.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위가 당정체제를 무시하고 정책적 혼선을 부추긴 인사, 국민과 당원에 오만과 독선을 보인 인사, 비리 연루 대상자를 쇄신 대상으로 꼽았지만 구체적인 지적은 없었다. /임동욱 기자 tum@

## ‘목포 출마’ 박지원, 민생 속으로



회, 지역 재래시장 등을 순회하며 표밭을 다질 예정이다.

목포 신고식을 통해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박 시장은 대통령민주신당 입당과 함께 12일엔 목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밭갈이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재래시장 등 순회 본격 행보

지난해 말 특별복권 조치로 정치적 ‘족쇄’가 풀린 김대중(DJ) 전 대통령 최측근 박지원 비서실장이 10일부터 목포 민생현장 방문을 시

작으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돌입했다.

18대 총선에서 목포 출마를 선언한 박 시장은 설연휴 직후인 10일 목포를 찾아 지역 지도층 인사와 지인들을 방문, 밀바닥 민심을 살폈다.

이어 11일에는 목포시청과 시의

# 박주선, 문화수도 조성위 폐지 대책 논의

## 4·9 총선 현장



○박주선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동구지역위원회 핵심 당직자 70여 명과 함께 새해 인사를 겸한 ‘떡국 나눔행사’를 갖고 격의 없는 토론의 시간을 진행.

박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명절동안 지역을 돌아보면서 동구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며 “경제살리기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조선대 로스쿨 탈락 및 문화중심도시조성위 폐지로 실의에 빠진 민심을 추스르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

### 정기남씨 “孫 대표, 톤 큰 정치력 보여라”



○정기남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10일 공개 서한문을 통해 손학규 대표에게 톤 큰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

정 후보는 “신당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과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국민이 한나라당의 경쟁세력으로 인정,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민주개혁세력의 통합과 당내 쇄신, 공천혁명, 당명 개정 작업을 통해 당의 명확한 정체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

### 김승남씨 “새 정부 성장 일반도 정책 우려”



○김승남 광산구 예비후보는 10일 “이명박 정부의 성장 일반도 정책으로 경제와 교육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며 지역 민심을 소개.

김 후보는 또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광주·전남지역이 이번 총선에서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선출, 한나라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심을 대변토록 해야 한다는 기대가 컸다”고 강조.

### 조영택씨 “호남 소외·고립 목소리 많아”



○조영택 광주 서구 예비후보는 10일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현실화되고 있는 호남소외, 고립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재래시장 등 시민

반응을 소개.

조 후보는 “지역민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청와대 수석 인선의 지역 출신 배제를 비롯,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 폐지와 추진단 축소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정권의 변방으로 몰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했다”고 전언.

### 심재민씨 “靑 비서관 인사 지역편중” 비판



○광산구 송정 지역에서 대통령민주신당 공천 경쟁에 나서는 심재민 예비후보는 10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인선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이렇게 특정 지역과 특정 대학 출신에 몰입하는 인사는 처음 보았다. 국민 통합과 능력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말은 국민을 기만하는 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

심 후보는 이날 “이명박 당선인은 편파적 지역주의·확립주의를 답습 말라”는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한 인사라면 호남·강원·충청 민심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없다”면서 “반쪽짜리 민심으로 국정을 펴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고 비판.

### 정용화씨 ‘사이버 선거운동’ 돌입



○한나라당 서구 갑 정용화 예비후보가 지난 9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고 젊은 층 유권자들을 잡기 위한 사이버 선거운동에 돌입.

정 후보는 홈페이지에 “정치적 험거 루기를 그만두고 이념의 벽을 허물어 살자는 길로 나아가 한다”는 출마의 변을 밝히고 약력을 비롯해 정책비전과 공약 사항, 활동 사진, 홍보 동영상 등을 담은 홈페이지를 공개.

### 장흥호씨, 복지시설 돌며 민심잡기




○장흥호 서구 갑 예비후보는 설 연휴 기간동안 지역내 노인 요양 시설, 불우 아동시설 등을 찾아 관계자들과 덕담을 나누면서 민심 잡기에 분주.

장 후보는 “참신성과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지를 당부.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이바기가 자랑스런우유요”



우유 배달원들이 우유를 배달하는 모습

### 제43호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일시: 2008. 3. 1 (토) 오전 8시

장소: 광주월곡집기장 및 양정동 일원(광주-남원로)


참가비용: 무료 (의류비, 3000원, 5000원)

주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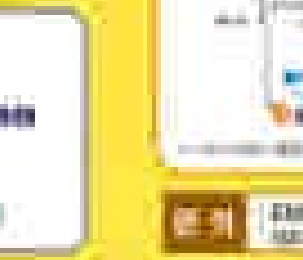
후원: 광주광역시 북구청, 광주광역시 남구청, 광주광역시 동구청,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주광역시 북부구청, 광주광역시 남부구청, 광주광역시 동부구청, 광주광역시 서부구청, 광주광역시 북부교육청, 광주광역시 남부교육청,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청,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 광주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일보

